도교육청, "조례 통과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새만금잼버리 참가비 지원 편성 요구"

1인당 지원금액 103만원… "더 많은 학생 참가 지원 교육효과적 측면에 도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비 지원 예산 편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잼버리 참가 학생(대원) 및 교직원(지도자; IST) 700여명으로, 1인당 지원금액은 103만원이다.

참가비는 세계연맹 103만원, 전북연맹 50만원 등 총 153만원이다. 현재 10월 4일까지 3차 모집중이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세계 170여개국 약 5만여 명의 학생이 문화를 교류하는 행사로, 세계최대의 청소년 국제행사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최소 비용으로 도내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서 글로벌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될 잼버리에 더욱 더 많은 학생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그 교육효과적 측면에서도 또한, 도교육청의 기능 및 존재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우리 지역에서 펼쳐지는 국가사업으로, 전북의 위상과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이자 교육의 역량 향상과도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잼버리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에 의해 진행되는 국가사업이다. 이는 청소년기본법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잼버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에서 주최하는 가장 큰 국제행사로, 청소년 야영활동이다. 이 행사는 전 세계 회원국의 청소년 및 지도자자들이 참가해 인종, 종교, 이념,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 문화교류 및 우애를 다지는 청소년 국제 행사다. 4년마다 스카우트 회원국을 돌며 개최되고, 이에 앞서 총회에서 회원국 대표의 투표를 통해 개최지를 결정한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학교협동조합 운영 학교 6곳을 대상으로 '2022년 찾아가는 학교협동조합 학생 캠프'를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5일 전북유니텍고에서 열린 학생 캠프.

안전먹거리 제공·교복 공동구매… 학교 구성원 욕구 충족

도교육청, 협동조합 운영 도내 6개교 대상 '찾아가는 학교협동조합 학생 캠프' 운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 학교협동조합 운영 학교 6곳을 대상으로 '2022년 찾아가는 학교협동조합 학생 캠프'를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학교협동조합은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공동으로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 교복 공동구매 등 학교 구성원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구성된 교육경제공동체다.

현재 도내에서는 전라중 '생그레', 양현고 'YHAM(얌)', 익산부송중 '도담', 진경여고 '어울림', 고산고 '高순도순', 전북유니텍고 '누리마켓' 등 6개교에서 학교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익산부송중은 지난 2일, 전라중은 14일, 전북유니텍고는 15일 각각 캠프를 운영했고, 진경여고와 고산고는 21일, 양현고는 22일 협동조합 캠프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캠프에서는 사회적경제 개념 이해, 만들기 체험을 통한 협동조합 운영 사례 공유, 사회적기업가 정신 및 창업 사례 교육,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발전방안 탐구 및 문제해결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다.

특히 전라북도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 보다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학교협동조합을 통해 협동과 연대, 공동의 가치를 배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다양한 경제 활동을 기획하고 도전하면서 주체적인 삶을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수시경쟁률 8.19대 1… 작년보다 상승

교과전형으로 약학과가 최다… 12월 15일 합격자 발표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2023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결과, 2,908명 모집에 2만3,804명이 지원해 8.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68대 1보다 상승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학생부교과전형은 2,048명 모집에 1만6,646명이 지원해 8.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학생부종합전형은 860명 모집에 7,158명이 지원해 8.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과는 학생부교과전형 일반학생전형 약학과로 4명 모집에 277명이 지원해 69.25대 1이었고, 학생부종합전형 큰사람전형 사회복지학과는 7명 모집에 222명이 지원해 31.7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편, 단계별 전형을 통해 선발하는 전북대 학생부종합전형은 1단계 서류평가를 통해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고 11월 11일 1단계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후 11월 24일 2단계 면접을 거쳐 12월 15일 최초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와 함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해 선발하는 학생부교과전형도 12월 15일 최초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네이처링' 활용 우리학교 생태지도 만들기

도교육청, 오늘 설명회 개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일 2층 강당에서 2022학년도 환경교육 중점 운영학교 담당교사 중 희망교사 80여 명을 대상으로 '네이처링'을 활용한 우리학교 생태지도 만들기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네이처링(NATURING)은 자연을 관찰·기록·공유하는 오픈 네트워크로 누구나 자연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일상적 자연 관찰자를 양성하고, 생태계와 인간사회의 상호작용에 대한 지식과 체험을 쌓아 이를 토대로 환경문제를 이해하는 효율적인 생태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와 함께 학교 적용 방안, 프로젝트 수업 연계 방법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이후 도교육청은 생태지도 만들기 실행 연수, 1학교 1숲해설가 매칭, 환경영화(다큐) 활용 교원 배움과 성장의 연수, ESG교육 교원 연수 등으로 생태전환교육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학교 생태지도 만들기로 시작해 우리 지역 생태지도 만들기로 확장해 우리 주변 생태자원의 소중함과 가치를 느끼고, 이를 보존하기 위해 행동으로 실천하는 적극적 사회참여인으로 성장하게 하는 생태전환교육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싱가포르 테마섹 폴리테크닉대학 학생 10여 명과 학교 관계자 2명은 19~30일 12일 간 전주에 머무르며 전주대 호텔경영학과와 함께 문화교류 활동을 진행한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전주대 호텔경영학과, 싱가포르 테마섹 폴리테크닉대 학생들과 문화교류 진행

전주대학교 호텔경영학과(학과장 안세길)는 싱가포르 테마섹 폴리테크닉대학 학생과 학교 관계자 12명이 호텔경영학과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 교류는 지난 2021년 전주시 및 전주대 문화관광대학과 싱가포르 테마섹 폴리테크닉대학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싱가포르 테마섹 폴리테크닉대학 학생 10여 명과 학교 관계자 2명은 19~30일 12일 간 전주에 머무르며 전주대 호텔경영학과와 함께 문화교류 활동을 진행한다.

이들은 한국어 및 K푸드 체험, 전주한옥마을 투어 등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한국 생태관광의 동향과 호스피탈리티 산업(Hospitality Industry) 및 디지털 호텔·관광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한 다양한 특강과 세미나를 펼친다.

싱가포르 테마섹 폴리테크닉대학 학생과 학교 관계자들은 이번 방문에서 순천 발효 테마파크 및 고추장 마을 체험, 군산 근대사 역사 및 문화탐방, 무주 태권도원 방문 등 현장 견학 관광 체험을 통해 전라북도 문화 및 생태계를 직접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전주대학교 호텔경영학과 학생 10명이 테마섹 대학 학생 10명과 1대 1로 매칭해 한국문화 체험을 돕는 '버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 상호 간 문화교류와 글로벌 감각을 키울 예정이다.

문화관광대학 심영국 학장은 "이번 프로그램 진행으로 전북 지역의 긍정적인 체험 경험과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토대로 두 대학 간의 교류 활동이 더욱 강화를 기대하며, 특히 호텔경영학과 학생들과 테마섹 대학 학생들과의 구체적인 교류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번 교류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임현정 교수는 "싱가포르 테마섹 폴리테크닉대학 학생과 학교 관계자들이 함께 강의를 들으면서 전주대 호텔경영학과의 교육 시스템을 공유하고, 공동프로젝트도 함께 수행하는 아주 뜻깊은 행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식물방역대학원, 전북대 등 3개 대학 학생 컨퍼런스

식물병해충 예찰 등 연구성과 공유

식물방역대학원은 지난 17일 식물병해충 예찰, 관리 및 검역과 관련한 최근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첫 번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대, 경북대, 전남대 식물방역대학원의 재학생들 간 교류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전공 관련 연구 성과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각 지역의 국·공립 기관 및 산업체 재직자 등으로 구성된 식물방역대학원 재학생들 전원이 참석하고 그 중 우수 연구자의 연구결과 발표 및 올해 해외 선진지 연수를 다녀온 학생들의 방문기 발표 시간을 가졌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우수연구자로 선정된 송성오 학생(전북대)은 병해충, 잡초 진단 및 처방에 대한 현장조사를 주제로 작물보호제의 안전성 확보 및 유통 현황조사를 통한 병해충, 잡초 진단분야 방향성 분석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전남대, 전북대 학생들의 해외 선진지 연수 방문기 발표를 통해 한 학기 동안 국내외 병해충 분야 연구활동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오후에는 대학 간 친목행사를 통해 각 대학 학생들 간 네트워크도 구축했다.

정서경 학생(전남대 식물방역대학원)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3개 대학 학생들의 연구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하고 친목행사를 통해 소속감을 느끼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과 진단, 검역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공유하고 3개 대학 학생들을 만나는 자리가 계속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재수 교수(식물방역학과 전공주임)는 "제1회 식물방역대학원 컨퍼런스로 3개 대학 대학원생들의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재학생들의 안정적 적응을 위한 학습공동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수준 높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매년 컨퍼런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물방역대학원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농식품기술융합 창의인재양성사업'에 선정돼 설립된 대학원으로, 전북대와 전남대, 경북대가 컨소시엄을 이뤄 3년 동안 66억 원을 지원받아 농작물 병해충 관리 및 검역 인력 양성과 연구에 앞장서고 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신임교원 11명 임용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는 교육 및 연구 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9월 1일 자로 신임교원 11명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19일 대학 본관 2층 총장 집무실에서 열린 신임교원 임용장 전달식에는 남천현 총장과 김성희 교무처장, 신임교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임용된 신임교원은 신진희(간호학과)·박종률(교양대학)·이광재(교육및문화콘텐츠개발학과)·하태균·전성범·신창훈(이상 스포츠지도학과)·박수신(약학과)·송석모·안진희·김미혜(이상 한의예과)·이승후(호텔외식조리학과) 등 총 11명이다.

남천현 총장은 "우석의 가족이 된 신임 교수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연구와 교육을 통해 대학 경쟁력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과 사명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계명문화대와 LINC 3.0 ICC간 공유 간담회

전주비전대학교는 19일 계명문화대학교와 'LINC 3.0 사업 기업협업센터(이하 ICC) 간 공유·협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주비전대 최승훈 LINC 3.0 사업단장과 계명문화대 윤성덕 LINC 3.0 사업단 단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ICC 산업분야 및 신산업분야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공동개발·운영 △ICC 산업분야 맞춤형 재직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공동 추진 △ICC 협력기업의 애로기술지도 공동플랫폼 제공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최승훈 단장은 "계명문화대학교는 LINC 3.0 사업 뿐만아니라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대학으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서로 협력하며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ICC와 연계된 다양한 신산업?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 및 산업체 맞춤형 기업지원 프로그램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덕 단장은 "전주비전대학교 LINC 3.0 사업의 인재양성 및 ICC 지원 프로그램과 운영 방안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었다"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양 대학이 더 많은 공유·협력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국내 학술대회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단장 변주승)은 23일 국내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HK+연구단과 충남대 유학연구소가 '주체, 타자, 그리고 유교적인 것'이라는 주제로 공동 주최한다.

이 학술대회는 변주승 단장과 충남대 유학연구소 김세정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대승(전주대) 교수와 최정묵(충남대) 교수의 사회로 제1부 '주체와 타자의 관계'와, 제2부 '주체와 타자에 대한 개념연구'에서 각각 3개 섹션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관계자는 "이번 국내 학술대회를 통해 근대 서양철학의 주체에 대한 아포리아에서 유가의 적극적인 철학적 개입과 만남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